

새로운 식품농업교육의 구축

The Establishment of New Education System for Food and Agriculture

최태동 | 식품산업정책연구단

Tae-Dong Choi | Food Industry Policy Research Group

머리말

현재 식품농업교육(食農教育)의 의미는 더욱더 크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식품과 농업을 결부시켜 생각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들 자신의 생존기반의 확립을 위해 배우는 교육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농업교육은 농업 경영자를 위한 농업교육과 소비자를 위한 식품교육(食育)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일체되어 전체적인 종합교육이 되어야 할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기반이 되는 학문기반 창설마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식품농업(食農)연구는 자연 과학 분야와 인문·사회과학 분야 양쪽을 합쳐놓은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양자가 종합적으로 결부된 과학 체계를 구축해갈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식품농업교육의 필요성은 우리들 자신의 식료기반이 점점 위협하게 되어가고 있

는 것과 직접 관계되고 있다. 식료생산의 외국 무역에 전적인 의존 여부, 자국의 식료생산량 및 충족 여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등 이와 같이 전체로서의 식료에 관한 정보와 결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들 일반 시민은 자신들의 식료와 그것을 지탱하는 자국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 식품농업교육은 이러한 자기 자신들의 식료 생산의 올바른 모습이나 전체적인 방향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형성해가기 위한 기반이 되는 식료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방법의 체계이고 그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현실은 일반시민 측에서의 식료에 관한 발언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게다가 감각적인 판단(‘싼 것이 좋다’라던가 ‘안전한 쪽이 좋다’ 등)만이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각의 업계 단체, 압력단체, 정치가만이 이러한 식료정책에 관한 발언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발언과 판단력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은 현재의 환태평양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대하여 참여여부를 긴급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경제적 과제로 등장해왔기 때문이다.

TPP를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계는 일본 공업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더욱이 국제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논리에서 추진을 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과의 무역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것이 중심적인 위협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환태평양의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한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일본산업계로서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산업계의 의견이고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각으로 일관되어 있다.

한편 TPP 가운데 자유무역이 실현된다면 일본의 농업은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농업 강대국들과의 사이에 완전한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간다면 일본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많은 농가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시각이다. 농업생산자에 있어서 농산물 가격의 침체와 하락은 직접적인 수입(收入)의 감소로 이어진다. 물론 해외수출이 가능한 농산물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쌀이나 축산물의 생산농가는 대부분이 위기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것은 많은 농업생산자의 의견이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사고방식 중에 일반 시민의 생각이나 발언은 대부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시민의 측에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재료나 판단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식농교육이란 자신들의 식료 기반과 그것에 필요한 농업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것은 농수성(農水省) 뿐만 아니라 농업단체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도시주민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일본 지역사회의 도시사회화 (都市社會化)

새로운 식품농업교육이 필요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사회 전체가 도시형 사회로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현상을 일본이 ‘도시문명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시문명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가 일본 사회 전체를 뒤덮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도시적인 생활양식이 일본의 어느 지역사회에 있어서나 대부분 모든 가정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적인 생활양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세 가지 요소가 조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시장경제의 요소가 상당히 강해지고 자급적인 요소가 적어지는 것이다. 상품생산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의하여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구성되어 가게 된다. 동시에 언제라도 필요한 때에 상품이 구입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특히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가용차를 보유하게 되고 게다가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자동차 이용이 가능한 도로가 정비되어 있

는 것이 조건이었다. 일본 농촌에서 이러한 것은 1980년대부터 그 이후에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농촌이라도 자동차로 두 시간 이내 대형 슈퍼마켓이나 전문점 혹은 전국 체인의 레스토랑이나 편의점에 도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이전의 시대에는 도시 주민만이 향유해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도 향유할 수 있다. 더욱이 택배편(宅配便)을 이용함으로써 언제라도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완되고 있다.

둘째는 가정 내의 물질문화가 도시적인 생활양식에 대부분 대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전제품 중 전기제품은 냉장고나 냉방장치부터 PC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농촌에서 색다른 차이는 없다. 예사로운 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시스템 부엌으로부터 방의 개별화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농촌이 구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금은 농업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양식이 기본적으로 소멸되어 버렸다.

셋째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농업에 근거한 사회관계가 중심적인 사회관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농업용수나 지역자원의 공동 관리에 관한 인간관계가 비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사회관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다. 더욱이 농가에 있어서조차 농업에 근거한 관계가 가족의 사회관계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 20년간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이지만 농업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점차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이행해감에 있어서 더욱더 현실적으로 되어 왔다. 농촌지역에서도 가족생활을 경제면에서 유지하는 사람들은 도시적인 산업이나 도시로 통근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도시화는 도시부분만이 아니라 일본 지역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것으로 되었

다. 그것은 일본 사회가 지금까지 농업에 근거한 사회관계, 경제적 기반, 생활양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지역사회 전체가 도시형 사회로 전환한 것이다.

도시사회의 식료기반

도시형 사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유로 식료나 농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도 그 식료기반을 무엇에 의뢰해야 할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가 가운데 도시와 농촌이 병립하고 있는 경우 도시는 농촌에서 식료기반을 구하게 된다 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그렇게 하였고 세계의 많은 나라, 특히 발전도상국은 그와 같은 상황 중에 현재에도 양자가 병립하고 있다. 그들 나라는 도시생활과 농촌생활과의 격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 사이에 양자가 공존하는 장치가 없어지게 되어버렸다.

일본사회에 있어서, 이를테면 도시형 사회로 되어버린 일본의 식료기반을 어떻게 확립해야 할지를 경험과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식품농업교육의 목적이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엮어내고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식품농업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농업교육 자체는 현재로서는 아직 수렵 도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교교육이나 자연교육의 장에 있어서 이미 구체적인 대처가 축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위에 구축되어갈 필요가 있

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식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체계이고, 그것을 최대한 일반화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스템이다. 도시주민이 자신들의 판단을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생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생존을 지속해 가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인간사회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존에 필요한 식료를 손에 넣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 경제활동 자체는 연속하여 진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이 간과되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다. 무엇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하여 무엇이 실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보이지 않는 과정의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도 일부는 보이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된 사회의 최대 약점은 프로세스(과정)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과정을 포함한 상품(물건)에 대하여 시민은 ‘살까?, 사지 말까?’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상품에 붙어 있는 것은 보이는 것(외관)과 값(가격)뿐이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품인지를 전해주고 보장하는 시스템이 상품(물건)에 붙은 표시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시사회 일본에 있어서 식료 구입

도시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회에서는 어떻게 농

업 문제를 파악할 것인가?

일반 시민에 있어 농업은 식료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첫째는 자신들이 먹는 식품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 식품이 안전한 것인지 어떤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 소비자로서 식품을 마주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의 가격에 대해서는 경제학자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가격에 의하여 시민의 구입량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에 따라서 가격은 구입할 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모든 것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쌀을 좋아하는 사람은 쌀을,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빵을,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수를 산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품가격의 미묘한 차이에 의하여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좋아하거나 식습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쌀, 빵 또는 국수가 모두 상품으로서 상품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의 기호를 반영하는 식생활과 그것을 유지하는 구입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들 상품이 서서히 매장에서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손에 넣는 것으로 전환하여 그 중에서 부득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신이 좋아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식료, 그것도 정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인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혼자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고 실은 무엇인가 자신 이외의 장치, ‘상품으로서의 먹는 것’을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장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광고를 통하여 얼마간 봄에 의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자신의 기호이다’ 혹은 ‘자신의 기호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어 새로운 구매활동

과 결부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맛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맛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며 사람의 기호는 때에 따라 변하여 간다. 장소나 문화에 따라서 기호는 바뀌어 가는 것이다. 일본의 식료뿐만 아니라 세계의 식료를 상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식료도 역시 상품이고 문화적으로 ‘기호를 부여한 상품’인 것이다. 농업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은 식료 또한 패션과 마찬가지로 기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취급되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체 그 식품이 안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과학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은 식품이 안전한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기술은 먹어보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부패했는지 먹어서 배탈이 날지 자세히 냄새를 맡고 신중하게 한 입 먹어 보고 상태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다.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들 자신도 이러한 작업을 되풀이 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물론 오감을 연마하는 것 만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도 많다. 여러 가지 병원체가 들어가면 먹거나 냄새를 맡거나 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많다. 과학적인 검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의 차이를 알 수 없으며, 맛이 변하지 않는 병원균의 정체를 찾아내고 우리들의 안전성을 사전에 체크해주고 있다.

다양한 위생 검사는 위생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다종다양한 검사가 실행되고 있는 것도 다종다양한 세균이나 독물(毒物)이 존재해왔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

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병이 든 사람이 아직 없는 세균이나 독물에는 아직도 대응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성과 기호화된 상품

식품의 안전성은 식료가 ‘기호화된 상품’으로 된 이래 별도의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사고미(事故米) 사건이나 국산 뱀장어 위장사건이 그 전형이다.

사고미의 판매는 원래 식료품이 아닌 쌀을 식료품으로 판매한 것이다. 사고미 자체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잔류농약(메타미드호스 등)이 섞여 있음에 따라 식료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품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겉보기(외관)로는 알 수 없다. 먹을 수 없는 쌀이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농수성으로부터 식품도매업자나 쌀 전문상사를 통하여 이런 쌀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쌀이 최종적으로 학교 급식이나 노인 가정의 식사에 식재료로 제공되고, 혹은 소주 재료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일반 시민은 대부분 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잔류농약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건강에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식품안전위원회의 판단)고 하는 결론으로 매듭지었다. 그러나 사고미 사건은 보이지 않는 쌀의 별도의 유통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상품은 식료품인지 아닌지 만을 기호로써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의 모양(기호나 문자)으로 상품의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지만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야채나 어류 등의 생식품(원료식품)은 현물에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공식품은 현물의 판단을 표시내용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들의 오감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시장에서는 항상 ‘기호로 하는 표시’가 ‘위장’될 가능성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외국산의 뱀장어나 죽순을 국산품으로 위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국산과 국산과의 가격 차이가 큰 것이 그 하나이다.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위조품이나 복제품(카피)에 대하여 엄하게 규제하지 않는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사건이 일어나면 비로소 당사자는 사태의 중대성을 깨닫는다.

표시의 부정확한 변경은 표시 그 자체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이 된다. 틀림없이 의약품에 부당한 표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은 결정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의약품은 과학을 기반으로 성립하고 있고 맛이나 외관과는 관계없기 때문이다. 식료품 역시 ‘표시’를 하는 이상 과학적인 근거와 신용을 의심받게 된다.

도시사회의 시민에게 필요한 식품농업교육

식품교육 또는 식품농업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히 보통의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식생활과 식료기반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줄까, 판단할 때 기초가 되는 지식과 방법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점에 있다. 농촌이나 도시에 살려고 하거나 농업에 직접 관계되지 않던 사람에 대하여 식사와 농업을 결부시키도록 깊이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력을 배양할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식품교육은 내각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몇 가지의 이점을 우리 사회에

주고 있다. 가장 큰 이점은 ‘돈이 있는 것만으로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식료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이다. 현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금이 있다고 해서 생활의 전부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를 하고 수다(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포함한)를 떨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산보를 하고 사색을 하는 등의 생활은 지속되고 있다. 인간의 삶은 기업체와는 차이가 난다.

또한 식사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먹는 것과 접대할 때 먹는 것, 두 측면이 있다. 이것은 세계 공통적이다. 세계 가운데 여러 다양한 사회에서 일상식이 있고 비일상식이 있다. 지금 일본의 식품교육에서 행사식(行事食)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이다.

때로는 식품교육을 통하여 전통식 재검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있다. 현재의 일본만큼 식사 그 자체가 다국적화된 나라는 없다. 그것은 국가의 방침으로 외국의 음식을 모두 좋아하는 시대가 계속되어온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부문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사회 일본을 세운 대가족제도나 직계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부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동시에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였다. 전통식(傳統食)을 전수하는 시스템 그 자체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 형태도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통식 그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사회는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사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사실이다. 동시에 전통식이나 지역식(地域食) 그 자체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전통식

을 이는 경우도 이제까지의 가정만의 경우에서 변
화해가지 않을 수 없다.

식품교육이나 식품농업교육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은 현물에 접촉해보고 육체와 오감을
가지고 깨닫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식료나 식재라
고 하는 것은 모두 구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
재와 인접한 농작물을 기르는 과정(프로세스)을 경
험하고 아울러 유통과정이나 사회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추상적인 관계에 이른 점에 특색이 있
다. 결국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작물
이 생산되고 구체적인 인간의 노동이 있어 유통과
정이나 가공과정이 있다. 그 관계의 전체를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상적인 사고는 추상
적인 지식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인간 사고의
근저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체험이나 감각이 필요
하게 된다. 받아들이는 측면의 농가에 있어서는 벼
베기 때에만 찾아와주는 아이들 때문에 준비를 계
속하는 것은 성가신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
은 교육의 하나인 것이다. 농업이라는 생산 방식,
농업이라는 생활 방식, 음식물을 만든다고 하는 인
간이 꼭 계속할 수 있었던 생활양식을 다음 세대에
게 전하는 것이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그것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식품농업교육의 전체상을 만들어내지 않
으면 안 된다. 구체적인 경험을 그대로 끝내지 않
고 추상화시켜 생각하게 하여 판단력이 있는 어른
시민으로 성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연과

학과 사회과학에 관한 지식의 통합이 시도되어야
한다. 식품에 있어서는 안전 판단에 있어서 자연과
학적인 검정과 함께 그것이 어디에서 왜 파탄 나는
가에 대하여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더해지지 않으
면 안 된다. 양자는 하나로 이룩되는 것으로 식품
농업교육이 있고 식육이 있는 터이다.

그래서 식품농업교육뿐만 아니라 결국 학문의
측면에서 백업(backup)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
자 자신의 연구 분야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농학뿐만
아니라 식농학(食農學)이라는 연구 분야를 창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의 생존기반이 되는
식료 및 농업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이다.

● 자료출처 ●

末原達郎(수에하라 타쓰로), 新しい食農教育の構築,
農業と經濟, 77(1), 2011.2.

최 태 동 경제학박사

소 속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정책연구단
전문분야 : 식품산업 및 식품정책
E-mail : ctdong@kfri.re.kr
T E L : 031-780-9195